일본 관서 시노노메교회 고우(34,가정국) 게시
받은날 : 2010.12.11

<경위> 점심 시간에 최근 게시와 말씀에 나오는, 선생님의 심정을 아프게 하고 있는 제 3 섭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저는 그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이 싫어서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 간절히 여쭈어봤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잘 받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어, 주님이 오신 느낌이 들어 기도했을 때 들려온 음성입니다.

<주제>예수님의 마음을 찢는 제3섭리의 비진리성에 대하여

2010.12.11 AM 02 : 34

네가 낮에 들은 것에 대해 지금 적어라.
(그 날 점심 시간에 저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최근의 계시와 말씀에 나오는 제3섭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몹시 마음이 아프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저는 도대체 제2·제3섭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선생님의 심정을 아프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 속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제가 봤더니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인데다가 몹시 지쳐,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마음이 심히 아파 영문을 물었습니다.)

슬프다, 내 사랑, 내 슬픔, 내 마음의 아픔, 이해해 주겠니. 누군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자가 없을까. 나는 몹시 지쳤고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옆에 앉으셨는데 정말로 불쌍하시고 몹시 지친 모습이셨습니다.)
네 마음, 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또 충만케 하여 그 안에 나를 맞이해다오.

(저는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사랑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저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어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성령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기쁘셨던지 예수님이 빛이 나고 웃으셨습니다.)

내 사랑아, 너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 말아라. 나를 위해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정말로 나를 위로해 준다. 나의 상처 받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뜨겁게 해 준다. 그렇다, 뜨겁게 해 준다! 너는 항상 뜨겁고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맞이해 다오.

(그리고 잠깐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2·제3섭리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2·제3섭리, 바다 건너 일본에 있는 너는 잘 모를 것이다. 내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로 근심과 슬픔으로 지쳐버린 모습에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심히 분노케 하고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이 뻔뻔스러운 행동, 보기에도 더러운 그 놈들의 행위에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속는 것이 가장 괴롭다.

(「예수님, 저희들이 속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이군요.」)
그렇다. 그 놈들이 어떤 짓을 한다해도 그들은 이미 멸망한 자들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 선생이 목숨을 걸고 낳은 최고의 생명의 걸작품들, 내 사랑, 나의 귀한 사랑인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이 무지로 그들에게 속는 것이 내 마음에 깊고 깊은 상처를 준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내 마음이 찢어진다.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 마음을 찢고 내 사랑하는 선생의 마음을 짓밟느냐. 너희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내 사랑, 선생의 사랑을 짓밟느냐. 왜, 무슨 이유로 내 사랑을 배신하느냐. 어찌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의 슬픔이 너무나도 깊어서, 제 육신은 어찌 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제 영이 예수님과 함께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예수님과 선생님을 배신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안 속습니까?」
무지를 없애라.
육성이 강하여 육으로 판단하고 육의 눈으로 보고 들으며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속는다. 그들은 비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진리에 대해 너희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는 것이다.

너는 그들의 실상을 봤지, 아무것도 아닌, 실속이 없는 하늘과 무관계한 자들, 그 말로는 땅에 떨어지며 보기에도 더럽다. (※지난번에 저는 사이비들의 영적 실상을 보고 계시로써 보냈습니다.)

내 사랑아, 알겠느냐.
비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속는 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사탄이 쓰는 논리는 사탄의 논리이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권에서 논리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느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예수님, 그건 어느 한정된 세계에서만 논리적이라는 뜻인가요? 인간의 세계에도 토론술(디벳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전혀 다른 대립하는 의견을 서로 주장하게 해서, 어느 쪽이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승부를 정합니다. 이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토론 안에서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안에서 만이라면 예를 들어, 지구가 사각형이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진실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지구는 둥급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한정된 세계 안에서만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면 된다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정된 세계 안에서 논리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와 같이 육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하늘 차원에서 보면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와 같이 그들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틀린 것이다. 육의 차원의 닫힌 세계에서는 진리로 가장할 수 있어도, 빛의 세계에서는 그 틀린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 법칙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너는 알겠느냐?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물질이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 뒤에 원자의 구조와 빛이 보였습니다.「예수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 역학과 고전역학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처음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전 역학으로는 빛(광자)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광자의 세계까지 설명할 수 있는 양자역학이 맞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에 한해서는 고전역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려도 마치 진실한 법칙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만 우연히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전역학은 일상적인 물질 세계에서는 문제없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시점에서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깨우쳐 주었다. 속는 자들은 육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논리적이라는 의미도 육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 논리를 육의 차원의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놈들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비진리를 진리로 잘 못 알고 속는 것이다.
(그 때 순간적으로 제2, 제3섭리의 영적 실상의 계시 중에서 속은 자들의 영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광경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육적 차원에서만 논리적인 것처럼 가장한 말에 미혹 되어 육은 따라가지만 영의 차원에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은 확신 따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 공허함에 빠져가는 것이다. 영의 차원에서는 모순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 영은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육의 행실을 쳐다보고 있다. 그 영은 육신의 무지를 원망하고, 잃어버린 세계를 갈망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져 간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그들을 위로할 수는 없다. 영원한 생명을 잃고 지옥 길인 줄 알

면서도 걸어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내가 계시자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 실상을 이야기하고 너라는 나의 작은 신부를 통하여 그들의 속임수의 근본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무지 때문에 속으면 되겠느냐.

내 사랑, 내 사랑스러운 작은 신부, 나의 사랑들에게 전해다오, 사랑한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너희들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만들어라. 나의 최고의 사랑인 선생이 목숨 걸고 낳은 너희들, 그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모른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아서 그 가치를 잃지 말아라. 더욱 신령해져야 한다.

내게 간구하여라. 이 시대를 깨닫고 선생에 대해 더욱 배워라. 시대와 선생의 가치성에 대한 무지를 없애고 말씀에 대한 무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말씀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육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머물지 말고 영적 차원까지 수준을 높여 이해하여라. 선생과 함께 네 사랑으로 나를 맞이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너, 내 사랑아, 나 예수가 너를 사랑하여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이것을 보낼까요?」라고 물으니「빨리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